

통신3사 '5G 중간요금제' 경쟁 본격화

SKT 중간요금제 출시 승인했지만 정부, 추가 요금제 요구 이용자 반응은 시큰둥...KT·LGU+, 이달 출시 앞두고 고민

정부가 29일 SK텔레콤이 신고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를 승인하면서 통신사들 간 요금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엔 출시된 요금제에 이용자들의 반응이 냉담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추가적인 중간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고 나서 통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정부는 우선 이번엔 출시한 중간요금제로 월평균 11~24GB를 쓰는 소비자와 8GB 이하를 쓰는 소비자 혜택이 볼 것으로 전망했다.

월평균 11~24GB를 쓰는 경우 현재 6만9천원 요금제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24GB로 이동하면 5만9000원으로 1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8GB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6천원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월평균 사용량이 23~27GB 정도인데 24GB를 대상으로 하면 평균 사용량을 쓰는 사람은 고가요금제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해 왔다.

정부가 추가적인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4GB가 소비자를 다 만족시킬 것인

생각은 안 든다"며 "추가로 50~100GB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중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인 KT와 LG유플러스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양사는 아직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과 금액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출시 시점은 8월 중이나 아직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결정을 내린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LGU+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상황이나 고객 요구, 정부 논의 상황을 종합 검토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요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새 형태의 중간요금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홍 실장은 "나머지 두 사업자는 유보신고가 아니라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KT와 LGU+가 24GB 이상의 공격적인 중간요금제를 내놓는다면 SKT 입장에서도 중간요금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와 SKT가 처음으로 5G 중간요금제를 발표했지만, 이용자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5G 커버리지 논란이 계속되며 품질에 불만이 있는 가운데 10GB와 100GB 사이 중간요금제로 24GB를 제공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용자들은 대신 통신사들이 소위 '출혈' 경쟁을 하며 요금제 선택지가 넓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10GB와 100GB 요금제를 가졌던 SKT와 달리 KT는 10GB와 110GB 요금제, LGU+는 12GB와 150GB를 기준으로 하는 요금제를 갖고 있어 차이가 더 큰 만큼 다양한 중간값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새로운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차별적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만큼 위약금 면제 등 유인책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 통신사의 중간요금제로 이동할 경우에도 공식 지원금이 다르다면 차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예전 사례를 보면 KT나 LGU+가 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에 자극받은 SKT가 추가로 요금제를 내놓곤 했다"며 "통신사들이 서로 눈치 보기 하며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름방학엔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놀자 플라스틱 주제 28일까지 특별전...물과학체험장도 인기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여름방학 특별주관을 운영한다. <사진>

지난달 개막한 플라스틱 특별전 '두 얼굴의 플라스틱'에서는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필수 소재이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플라스틱의 양면성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와 연계해 17일에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과학스쿨을 개최하고, 21일에는 필사인사 특별 초청강연 '플라스틱과 인류세'를 통해 플라스틱에 대해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

또 이달 6일부터는 선착순으로 종이부채를 기념품으로 나눠준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개최된다. 지난달 29일 개장한 '물 과학 체험장'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광주를 대표하는 도심 속 피서지로 자리 잡았다.

페달보트, 워터바스켓, 물총놀이 등 다양한 부대체험과 각종 편의시설 및 인명구조자격을 보유한 운영인력을 갖추어 재미와 청결, 그리고 안전까지 빈틈없이 챙겼다.

또 12일에는 한여름 밤을 수놓을 '페르세우스 성운' 특별관측 행사도 운영된다. 이 밖에 SNS를 통한 행사 참여 인증 온라인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여름방학 특별주간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달에서 가져온 흙에 지구 식물 심었더니 싹이 났다

아기장대 씨앗 발아 재배 성공 식량자원·산소 등 확보 길 열어

달 표면을 덮고 있는 먼지와 흙으로 된 퍼석퍼석한 물질인 '레골리스'(regolith)에 이어 탄소질 콘드라이트 소행성 토양에서도 작물 재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전문 매체 '사이언스뉴스'(ScienceNews)에 따르면 미국 노스다코타대학 우주생태학자 셰리 피버-바이어가 이끄는 연구팀은 탄소질 콘드라이트 소행성과 비슷하게 만든 토양에서 식물을 재배한 결과를 미국천문학회(AAS)가 발행하는 개방형 정보열람 학술지인 '행성과학저널'(Planetary Science Journal)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탄소질 콘드라이트 소행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소행성은 질소와 인산, 칼륨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3대 영양소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탄소질 콘드라이트 소행성과 비슷하게 만든 모방 토양에다 초탄(草炭) 토양인 '피트모스'(peat moss)를 섞는 정도를 달리하며 로메인 상추와 칠리 고추, 붉은 무등을 재배했다. 이 식물들은 모두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미중력 환경에서

재배에 성공한 종들이다.

피트모스는 수생 식물이나 습지 식물의 잔재가 바닥에 쌓여 형성된 유기물질로 보수력과 통기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피트모스가 섞인 모방 토양에서는 작물 별로 편차는 있어도 모두 생육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피트모스 없이 모방 토양만으로 된 곳에서는 토양 입자가 뭉치면서 물을 유지하지 못해 식물이 자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탄소질 콘드라이트 모방 토양에 공과의 덩굴성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를 심어 재배한 뒤 줄기를 토양 속에 넣어 피트모스처럼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실험이 유효한 것으로 입증되면 피트모스보다 무게가 훨씬 덜 나가는 헤어리베치 씨앗을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소행성에서 농작물 재배를 시도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플로리다대학 식량농업과학연구소(FU/IFAS) 연구진이 지난 5월 달에서 가져온 레골리스에서 아기장대 씨앗을 발아시켜 재배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

이런 시도들은 유인 우주탐사 현장에서 식량 자원을 직접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식물의 광합성 등을 이용해 산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 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합뉴스



탄소질 콘드라이트 토양+피트모스 배합을 달리한 식물재배 장면.

세계가 달 탐사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국립중앙과학관, 10월3일까지 '달 탐사 특별전:MOON' 개최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내 첫 달탐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를 기념해 '달 탐사 특별전: 문(MOON)을 열다 (FLY ME TO THE MOON·사진)'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전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객이 마치 우주인이 돼 달에 가는 여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별전에서는 세계 각국이 최근 달 탐사에 나서는 이유와 발사체 기술, 다누리에 적용되는 탄도형 달 전이(BLT) 궤도 등이 소개된다.

또 국내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가 실제로 입은 우주복과 아폴로 17호가 가져온 월석 실물이 전시된다.

전시관에서는 전시 기간 매일 다누리가 실제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월면토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공간도 있다.

아울러 국립중앙과학관은 특별전과 연계해 야간개장(8월 5-6일, 12-13일)을 하고 오후 10시까지 달과 토성 등 천체를 관측하는 행사를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우주과학 특강도 열린다.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은혁 박사가 8월 27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엠베서더인 폴 윤 교수가 9월 24일 강의한다. /연합뉴스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